월 운(月暈)

그렇게 몸달아 서두르던 고아원 인수의 전날 밤이었다. 거의 수삭이나 애쓴 끝에 이루어진 일이건만 홍 여사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그리 신명이 나지 않았다. 어쩐지 남의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편치 않은 것이다.

날이 궂으려는지 하루살이가 램프에 성가시게 덤비곤, 이내 홍 여사가 벌여 놓고 있는 자질구레한 서류 위에 수두룩히 죽어 떨어지는 까닭인가. 그것뿐만도 아닌 성싶다. 다른 때 같으면 벌레가 날아들지 않게 문을 못 닫느냐고 금순이를 때려 잡았을 것인데, 왠지 그렇게까지 해서 잔글씨를 더듬고 싶지가 않았다. 무엇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집 안에 들어와 꽉 눌러앉아 있는 것 같아, 함부로 북새를 떠는 것이 저어되는 것이다.

홍 여사가 집에 돌아온 것은 어스름해서였었는데, 집안 꼬락서니를 그 따위로 해 놓고 금순이란 년의 도도한 태도란, 발칙하다기보다 차라리 어처구니가 없었다. 골목으로 꺾어들 때부터 섬찍해진 것은 달이 뜬 지도 한참인데 대문이 뻐끔히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한 달음으로 골목을 빠져 집에 들어서 보니,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

으나 어딘지 소란하다. 옥네네가 들어 있는 문간방 앞 툇마루에는 콩나물 바구니가 그냥 나자빠져 있고, 연탄 화로에서는 된장찌개가 마구 넘고 있었다. 댓돌에는 신짝들이 어수선하고.

암만해도 무슨 변이 난 모양이라고 걱정보다 어른의 분부를 어기는 소위가 괘씸하여

"금순아!"

하고 '호랑 할머니'의 별호 그대로의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것은 또 어울리지 않게 명랑한 소리로 길게 대답을 하며 뒤꼍에서 금순이가 톡 튀어나왔다.

홍 여사는 금순이에게는 그것이 당장에 박살을 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 없다고 늘 생각되어지는 그 넌짓한 눈흘김을 쓰윽 한 번 던지고 안방 미닫이를 득 열었다.

그야말로 죽으려고 날을 받았는지 방안 꼴 역시 말이 아니다. 윗목에는 나갈 때 그대로 청동 화로가 삼발이를 꺼꾸로 틀어박은 채 둥그러져 있고, 삼층장 중간 서랍은 넝마 조각이며 노끈 같은 것을 너절하게 늘어뜨리며 열린 채 있다. 다음날 인수식 때 입을 양으로 모처럼 새로 지은 옷을 옥네네보고 다려 놓으라고 이르고 나갔는데, 그것도 구김살을 펴지 못한 채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이다.

언제 들어온 것인지 방 한가운데 지저분한 밥상이 덴글 굴러 있는데 숟가락이 밥그릇에 꽂혀 있는 것을 보니 아직 식사가 끝나지는 않은 모양이다. 상발 밑에는 숭늉을 흘렸는지 미닫이에 붙여진 유리 조각으로 비쳐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그 자리만이 반짝 밝다.

여덟 살 난 진표는 동창 미닫이 훤한 쪽으로 머리를 두고 밥상을 지다시피 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방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조각에 어지간히 골몰하고 있어, 고모가 돌아온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늦도록 딱지만 치고 놀았던 것이다.

홍 여사는 그만 한꺼번에 피로가 날아가 버렸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조카의 얇은 어깨를 움켜잡으려는데, 이런 때면 생쥐 구멍에

숨듯이 부엌에 박혀 있는 금순이가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무슨 큰 치레나 하듯이

"뒷방 색시가 애기를 낳는대요."

하는 것이다.

홍 여사는 그래서 이 소동이었구나 하는 짐작이 가자 그만 울화가 왈칵 치밀었다.

그야 아무리 한 번도 생산을 한 일이 없기로서니, 해산을 한다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홍 여사도 모를 바 아니다. 다만 뒷방 색시 같은 주제에, 온통 주인집까지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뒷방 색시가 할머니에게 척질 짓을 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마루턱 대머리 복덕방 영감의 말대로, 기왕 세를 놓을 양이면 짐짓이라도 그런 자리를 구하고 싶을 만큼, 조촐한 살림이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시골 출장이 잦다고 색시는 묻지 않는 말을 하고 얼굴을 붉혔다.

스물 대여섯이나 될까, 이맛전과 눈썹이 고운 상냥스러운 얼굴이 웃으면 덧니가 들어나 귀염성스러웠다. 달마다 그믐께는 그 귀염성스러운 웃는 얼굴을 붉히며 방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꼬박꼬박 세를 내고 들어 있는 이상 좀더 떳떳이 굴어도 좋으련만, 죄 진 사람처럼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고, 말할 때에는 으레 얼굴을 붉히며 'Z'음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저어'를 연발하는 것이다. 방세를 들여 올 때만 해도 무슨 어려운 청이나 하듯이 머뭇거리다 돈을 치르곤 하였다.

그런 것들이 다 수상한 일이라고, 옥네네는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

문간방에 들어 있는 옥네네는 입과 손이 맞 섰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제 상두(喪輿)꾼 오늘 새신랑 초롱 밝힌다고,

엊그제 수의(壽衣) 짓던 손으로 오늘 삼을 갈랐다. 그렇게 뜨내기로 떠돌아다니는 까닭인지 동네 안 일에 환한 것이다. 풍도 섞이긴 했지만 안 땐 굴뚝에 연기 올린 일은 없었다. 설마 하고 들은 말도 알고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런 옥네네가 하는 소리인 것이다.

이사온 지 일곱 달이 넘었는데, 어리친 강아지 새끼 하나 찾아온 것을 보았느냐는 것이다.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선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골 출장이 잦다고 묻지 않는 말을 한 것도 제 발이 저려서 그런 것이지, 돈암동께에 있는 시골인지 누구 알까 보냐고 찡긋거렸다. 하지만 남의 작은집치곤 지나치게 얌전하고 공손하다고, 덧붙이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 여사가 뒷방 색시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옥네네의 말을 들은 까닭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던 후부터인 것 같다.

색시네가 옮겨온 지 달포쯤 되었을 무렵인가 보다.

헛간에 볼일이 있어 뒤채에 갔다 오는 길에 색시방을 지나치려는데, 방 앞에 놓인 연탄 화로 위의 양솥이 사뭇 기관차 소리를 내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언제부터 올려 놓은 것인지 솥바닥이 지글지글 타고 있다. 아무리 두 식구 끓여 먹는 솥이라 해도 물 한 솥 끓다 졸려면 한참을 걸려야 하는데 방에 있고서야 그렇도록 내다보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고 우선 솥을 내려놓고

"있수?"

하고 소리를 쳤다. 대답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방을 채우지 않고 방을 비웠나 하고 사르르 방문을 열어 보았다.

순간 홍 여사는 질겁을 하고 매무새를 고치는 색시보다 더 당황하여, 메어붙이듯이 미닫이를 닫고 방 앞을 떨어졌다. 아직 퇴근 시간도 되지 않은 대낮에 '신랑'이 방에 와 있을 줄이야 참말 몰랐다. 무안은 오히려 이쪽이 더 당한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찔어찔해지는 것이다.

홍 여사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캄캄한 시야 안에서 알쏭달쏭한 동그라미가 뱅뱅 돌았다. 그러다가 감은 눈 속이 화안해 오는 것이었다. 가지가 휘도록 몰켜서 활짝 핀 벚꽃이었다. 봉오리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여린 꽃잎 하나 흐트리지 않는 무슨 절정(絶頂)을 연상시키는 꽃 모습이었다. 코에 오는 향기가 숨가빴다. 벌이 윙윙거리며 들락날락하면 꽃들은 오들오들 떨다가 견디다 못하듯이 노오란 꽃가루를 호르르 날리는 것이었다.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홍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찔어찔해졌던 것이다. 어느 무르익은 봄날의 일이었다.

바로 그 때 느꼈던 현기 같다고 홍 여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엉뚱한 연상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딘지 불안스럽고 비밀스러운데, 공통된 인상이 있었다.

홍 여사는 그 때부터 그렇게 왈칵 몰켜 핀 꽃이 징그러워졌고, 또 그만큼 색시가 잡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십 안 청상 과부로 고스란히 수절해 온 결벽에서인지 혹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식 행위라는 것은,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지 죄 같은 것을 풍기는 까닭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홍 여사는 색시에 대해선 그만 생각이 전도되는 것이다. 색시보다 먼저 뒷방에 목공소 직공을 넣었다가 진저리를 낸 일은 까막 잊어버리고 있었다. 개구쟁이 선머슴이 넷이나 되는데 일거리가 시원치 않다고 반 년 이상이나 세를 못 내고 있어 방을 비게 하는 데 진땀을 빼었건만, 좀처럼 바랄 수 없는 입에 맞는 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색시한테 방을 빌려 주는 것이 그렇게 유세스러운 것이다.

그러기에 좀 전에 산실(産室)에 들어가 본 것만 해도, 무엇 우러나는 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빤히 아는 일이기에 숨을 모으는 것 같은 신음 소리도 그리 겁날 것은 없었다. 젊은 것이 더구나 그 처지에, 그렇게 퍼더버리고 안간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밸이 꼴려, 지루한 시간도 끌 겸 옛날에 아무개는 보리방아 찧다가 부리나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남에게 들은 말을 본 것처럼 할 양이었었는데 방에 들어서자 말문이 막혔다.

산실에는 서너 군데서나 양초가 타고 있었다. 식사 때 외에는 책상으로 쓰여지는 모양인 소반 위와, 젊은 산모의 머리맡과 발치께에. 후텁지근하고 습습한 방 공기 까닭인지, 바람도 없는데 촛불들은 찍찍거리며 꺼질 듯이 불꽃을 오므려뜨렸다간, 다시 벌렁벌렁 살아 일어나곤 하여, 그럴 때마다 서로가 던지는 그림자가 천장, 벽 할 것 없이 얽히며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방문을 열던 순간부터 무엇인지 신경에 와 닿는 것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불빛 아래 역시 흔들거리는 여러 개의 그림자를 지고 있는 색시와 옥네네의 모습이 퍽이나 기이하게 보였던 까닭인가. 아주 상스럽지 않고 어슬픈 방 공기인 것이다.

홍 여사가 들어가도 색시는 숫제 본 척도 안 했고, 옥네네 역시 약간 벽켠으로 물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 대접이 시시풍덩 하였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선상님 옷 참 못 대렸사와요. 글쎄 점심 전에 이슬이 뵀다 해서 ……."

금순이란 년과 꼭 같은 태도다. 홍 여사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는 얼굴인 것이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의기가 꺾이고 보니, 남따라 모르는 집에 간 것처럼 어색해지는 것이었다.

하여간 서 있을 수도 없고 들어온 이상 바로 나갈 수도 없어 거북스럽게 앉아 보았다.

색시는 눈을 감은 채 앓는 소리를 하며 개킨 이불 위에 엎드려 있었다. 잠이 들었나 하면 갑자기 무엇에 찔린 것처럼 소스라쳐 몸을 비꼰다.

뽀오얀 손이 갈고쟁이 같은 옥네네 손에 얽혔는데, 그릴 적마다 손마디에서 가는 뼈 꺾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도 옥네네는 눈

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아프기도 하련만 손을 맡긴 채, 그리 '헛심' 주면 안 된다고 타이르기만 한다. '이슬'이니 '헛심'이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사는 모른다. 다만 흔들리는 불빛 아래 상금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만이 지친 머리속에서 자꾸만 커가는 것이었다.

"여북해야 아이 아범 신발 갖다 버리랄까. 하늘이 돈짝만 해 뵌다지 않우. 허지만 뉘나 다 겪는 일이니깐."
하며 옥네네는 색시의 등을 쓸었다. 웬 아이 일곱을 낳고 삼할머니로 불려 다닌 지 십여 년의 경험이 시키는 침착한 말투였다.

그러나 색시에게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모로 치떴다간, 다시 꽉 감고 하는 눈도 그렇게 뚫려만 있었지, 무엇이 어려질 것 같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상냥스럽던 얼굴도 확 달아올랐다간 이내 핼쓱해져서 아주 딴사람이었다. 색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수줍음도 외면 치레도 없었다.

마구 식은땀을 흘리는 까닭인지 산모의 체취가 사뭇 짙었다.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 왔다. 한구석에 이불이며 옷그릇 같은 것을 쌓아 올린 간반 방은, 요 깐 자리를 빼놓고는 몇 사람 앉기가 협착도 하였으나, 방이 좁은 탓만도 아닌 것 같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색시를 지켜보고 있으려니깐 딱하다기보다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뺨이 달아오를 때에는 더욱 빛을 잃어 보이는 입술이 몸을 뒤채어 꼴 적마다 말려 올라가, 단단해 보이는 쪽 고른 이가 드러나면, 거기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이 한 젊은 여인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무슨 성숙된 암짐승과 같다고나 할까. 양이라든가 여우라든가 하는 그런 구상적인 짐승이 아니고 그저 짐승이란 명칭으로 총괄되는 산 것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홍 여사가 문란한 것을 볼 적마다 흔히 입에 올리는 '금수 같은 것'이란 말이 의미하는, 그런 동물과도 다른 것이었다.

당황한 인상이었다. 거기엔 잡스러움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살벌하리만큼 긴장되고 무슨 제전(祭典)을 연상시키는 외포(畏怖)가, 진통이라든가 분만(分娩)이라는, 동물적 공포 위에 서려 있는 것이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흔들리는 여러 개의 그림자를 지고 뼈마디가 꺾이도록 산모에게 손을 잡힌 채 앉아 있는 옥네네의 모습이 진지하고 위엄스러웠다. 마치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색시가 아니고, 보다 소중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홍여사는 그만 일어서서 밖으로 나와 버렸던 것이다.

홍 여사는 돋보기를 벗고 서류 위를 덮은 하루살이의 주검을 턴 후 불을 껐다. 열 시는 넘었을까, 약간 이지러진 달이 제법 높이 떴는데 달무리가 넓게 자리를 잡았다. 밝은 달이었으나 물기를 먹어선지 고운 은가루를 뿜어나 놓은 것처럼 자욱한 달빛이다. 우물 뒤에 서 있는 대추나무가 온통 구슬을 꿰어 단 것 같고 그 옆에서는 하루살이 기둥이 돌고 있었다. 성가시게 불에 덤비던 하루살이는 거기서 날아온 모양으로 꺼진 램프 둘레에서 맴돌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가는지, 기둥은 점점 더 굵어져 갔다.

조금 전까지도 앞집 높은 지붕의 그림자가 위협이나 하듯 낡은 행랑채 지붕을 덮고 있었는데, 달이 높아질수록 물러나가 먼 개짖는 소리까지 무엇을 회상시키는 밤이었다.

언제 나왔는지, 옥네네가 걸쌍스럽게 금순이를 불렀다. 호되게 야단을 맞고 볼에 밤을 물은 채 부엌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던 금순이는 대답이 없었으나, 옥네네는 거푸 나중에 허둥대지 않게 자배기에 물을 좀 퍼 놓라고, 소리를 지른다. 자기집 부리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 도도한 호령이었다.

금순이는 이내 뛰어나온 모양이다. 두레박 소리가 들리더니, 출렁출렁 물소리가 났다.

옥네네는 달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첫 애기니깐."

그래서 어렵고 더디다는 말인지, 머리를 저어 보이고 뒤꼍으로 되돌아갔다.

뒷방에서는 또 색시의 신음 소리가 높아져 갔다.

물것이 덤비는지 닭장에서 닭이 푸드덕거렸다.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 박혔는지 우물가에는 금순이가 보이지 않고, 다만 방금 자배기에 길어 부은 물 위에, 달무리를 두른 달이 떠 있다.

홍 여사는 점점 마음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무얼 믿고 그러는지 옥네네나 금순이란 년의 태도가 우습지도 않고, 밤낮 죽어지내던 색시가 아주 자기를 싹 무시해 버린 까닭인가, 아침부터 지치도록 돌아다닌 까닭인가.

그것보다도 홍 여사는 아까부터 앞집 지붕 그림자가 물러 나간 후, 흰 헝겊 조각이나 걸친 것같이 희뿌옇게 달빛을 받고 있는 행랑채 지붕에 자주 눈이 가지고, 그것이 자꾸만 어떤 연상을 부르는가 하면, 자배기에 퍼 놓은 물 위에 떠 있는 달무리가 억지로 그를 지난날로 끌고 돌아가려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망인(亡人)의 옷을 지붕 위에 올리고 초혼(招魂)하는 광경이었다. 사초롱이 어른거린다. 거적 깔고 짚베개에 엎드린 머리의 석류잠을, 누구인지가 빼어 주었다. 다시는 꽂지 못할 석류잠이었다.

열아홉, 아홉수가 나쁘다고 꺼리던 것이 진담이 되어, 그렇게 첫머리를 남편상에서부터 풀었던 것이다.

묵어 내려온 반명가의 법이 무서워, 다홍 치맛자락이 그제껏 조심스럽게 젊은 아내는, 작은사랑에서 숨을 몰고 있다는 남편을 간호할 길이 없어, 그저 안채에서 그의 임종을 벌써 열흘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보다 한 살 아래인, 열여덟 나는 어린 남편은 성례 후 반 년이 못 가서 부족(肺病)에 걸려 삼 년째 내려오는 단방(斷房)이었다. 병세가 부쩍 더해졌다는 소리에, 교전비(轎前婢)로 데리고 온 유모가 그

렇게 서둘러 주지 않았던들, 새신랑의 키가 그렇게 늘씬하고, 갸름한 얼굴이 밀랍같이 맑고 희어, 오싹해지도록 아름다웠던 것을 모를 뻔 했다.

엄격한 시아버지가 종중 제사에 참사하러 간 틈을 타서, 도둑질이나 하듯이 만나 본 남편이었다. 삼년 전의 아이 티가 가시고, 코밑에는 엷게 수염까지 자리를 잡았다. 가슴이 떨렸다. 스스럽고 부끄러웠으나 벅차오르는 것 쪽이 더욱 컸다.

아내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앓는 남편의 이마에 가지고 갔다. 타는 듯한 열이었다. 지그시 눌렀다. 그러니깐 이번에는 남편이 가슴 위에 얹었던, 역시 타는 듯한 야윈 손을 올려 아내의 손 위에 놓고 수척한 몸의 어디서 나오나 의심되리만큼 센 힘으로 지그시 덮어 누르는 것이었다. 아내의 손자국을 이마 위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내의 손은 끓는 이마와 손 사이에서 이내 화끈 달아올랐다. 이윽고 뜨거운 것이 전신을 굽이쳐 흐르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아내는 밤이면 정안수를 떠놓고 빌었다. 정밤중 우물가에 떠놓은 정안수 대접 속에서 달이 차 갔다가 다시 이지러졌다.

정안수는 어느 초여름 달무리 지는 밤에, 달무리 하는 달을 어리곤 거두어져 버렸다. 어린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거두어져 버린 정안수는, 남편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홍 여사는 과부로서 긴 생애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십 년이 가까운 오늘날까지 여사는 남자의 살을 몰랐다.

날이 쌓여 해가 감에 따라 지난날 밤에 그 타는 듯한 이마와 손의 뜨거운 촉감도 식어 가고, 어쩌다 '남편'이란 말이 머리를 스칠 때에도 그 말이 밀랍같이 희고 맑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열여덟의 소년과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었다.

남편의 이름은 '박우양'이라고 불렸었으나, 정부 불견 이부(貞婦不見二夫)의 부도가 어엿한 이상, 여사에게는 '박우양'이건 '남우양'이

건 매한가지인 것이었다.

그저 아름다운 소년이라고만 기억할 뿐이지, 외삼촌을 그대로 빼어 썼다고들 하는 생질을 보아도 되살아오는 감개가 없는 것을 보면, 남편의 인상(人相)조차 또렷이 붙들지 못했던 것 같아 쓴웃음이 일었다.

여주에 있는 남편의 무덤에 언제고 여사는 합분(合墳)되기로 되어 있으나, 짜장 귀신이 있다면 어린 소년인 남편과 파뿌리 흰 머리의 노파 아내는, 서로 몹시 놀라고 당황할 것이 아닐까. 참으로 어이없게 그런 남편과 더불어 홍 여사의 인생도 묻혀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육십이 되는 오늘까지, 홍 여사는 한 번도 그런 일에 생각을 뻗어 본 일이 없었다. 애꾸눈이 없어진 눈 성화하지 않듯이 과부라는 뜨세로 오히려 걸쌍스럽게 살아왔다.

뜻하는 일에는 그대로 덤벼 갔다. 남편의 삼년상을 치른 후 친정으로 돌아간 것도, 계집 버리는 곳이라고 남들이 꺼려하던 학교에 들어갈 속심에서였다.

몸을 던지다시피 하여 공부한 끝이 ×× 여학교 가사 선생이었고, 그대로 쭉 내리 이십 년을 근속하여 돈푼이나 좋이 모았다는 소문이었으나, 흰 옥양목 적삼이 아니면 치마와 같은 회색 세루 저고리에 검은 세루 치마를 두르고, 부리는 사람들 먹는 것까지 살필 만큼 규모를 부렸다.

젊은 사람이 좋아서 중매하는 것이 낙이라고 떠드는데, 왠지 제자들이 중매를 부탁하는 일이 없었고, 얌전하고 온순한 양자 내외가 배기다 못해, 맨몸으로 나간 것은 벌써 사변 전의 일이었다.

사변통에 고아가 된 친정 조카 진표를 데려다가 기른 후부터는 두 마디째에는

"저것을 사람 맨들어 놓기 전에는!"

하는 시름이었으나, 진표는 고모 앞에만 나서면 저절로 가는 목이 어깨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관상쟁이가 한 말대로 팔자는 세었으나 남 위에 설 상이었는지, 누르는 힘이 있었다.

반장을 맡아 보게 된 것은 학교를 그만둔 후부터인데 기껏해야 남의 심부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도, 홍 여사가 맡아하면서부터는 무슨 벼슬 자리나 되는 것처럼 위엄을 가졌다.

일정 시대 때 소위 애국 반장으로, 조선 신궁 돌층계를 세우 오르내리던 정성이 해방 후에는 고스란히 예수교로 모여, 지금 와서는 홍 집사님으로 통하고 있었다.

이번에 인수받게 된 고아원도, 교회 덕으로 된 일이기는 하지만 무던히 애를 먹었었다. 그 나이까지 살아오는 동안 크고 작은 기다림도 숱하게 많았으나 이번에는 일이 좀 큰 데다가 여러 가지 장해도 있었던 것이라 도장이 턱 찍힐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아 색시의 산고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데 십상일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먹은 것인데 생각이 그렇게 미끄러져 갈 줄은 몰랐다.

그날 밤같이 달무리하는 초여름 밤인데다가, 소리 없이 술렁거리는 불안 속에 그날 밤같이 신음 소리만이 판을 치는 까닭인가? 아니면 목숨이란, 날 때나 죽을 때나, 사람 자신의 일이면서 사람을 넘은 사람이 추측할 수조차 없는 신비 그것인가.

홍 여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졸린 소리로 열하나를 쳤다.

머리 위보다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진 달의 윤곽이 아까보다 좀 번져 보였다. 자배기 물 위에는 여전히 달무리가 어려 있었으나, 하루살이 기둥은 보이지 않았다.

비 오기 전이면 흔히 그렇게 서는 하루살이 기둥 이야기를, 아직 학교에 다닐 때 익살꾼 박물 선생한테 들은 것 같다. 하루살이는 사실 하루를 못 산다는 이야기——공중에서 그렇게 기둥을 이루어 몰려 날으며 교미하고, 땅에 떨어져 이내 수컷은 죽고, 암컷도 산란(産卵)한 후, 역시 즉시 죽는다는 이야기——그런 이야기들이 상기되

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까까지 공중에서 광란하듯 맴돌던 하루살이들은, 그 새 할 일을 다하고 죽어 버린 것인가. 생각하면 성가시게 불에 덤비다 타 죽은 것이나, 기둥을 이루며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것이나, 불과 한 시간의 차도 없이 다 같이 죽음에 빠져 버린 폭이었다. 그러나 이 벌레의 종족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들었던 그런 말들이 실감을 가지고 여사의 머리에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홍 여사는 오늘 저녁의 옥네네나 금순이의 태도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생명'에 참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기에 그렇게 도도하고 떳떳했던 것이 아닐까.

홍 여사는 채찍질이나 받은 것처럼 일어섰다. 색시가 남의 작은집일지 모른다든가, 해산을 한다는데 애기 아버지 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순간이었다. 아까 느끼던 짐승, 말하자면 짐승의 위치에까지 내려간 자연의 생명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야 할, 가장 진실한 과제(課題)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홍 여사는 청 아래로 내려섰다. 바로 그 때였다. 뒤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나오더니, 이어서 약하디 약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홍 여사는 아직도 달무리가 떠 있는 자배기 물이 정안수나 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 앞에서 손을 모았다.

공연히 뜨거운 것이 앞을 흐리는 것 같은 심정에, 여지껏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기다리는 동안에 지나가 버렸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상념이 스치는 것이었다.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왔다. 그것은 아침부터 뛰어다닌 끝의 피로라기보다 여지껏 겪어 온 인생의 피로였을는지도 몰랐다.

(1955. 6. 6.)